

생활과학에서 ‘건강’이라는 코드(Code)의 재해석과 전망

송 혜 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생활과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연구대상인 가정(생활)의 건강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고, 연구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서 이를 풀어내어 왔다. 가정학, 생활과학의 태생 그리고 학문적 목표에 견주어,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 혹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복지 증진이라는 지향성이 결국 가정의 건강성이나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으로 결집되었다고 본다면, ‘건강’이라는 개념에 대한 가정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의 질, 복지, 행복 등의 단어가 있음에도 굳이 ‘건강’이라는 단어를 보다 부각시켜 연구자들의 관심이 결집, 회귀되었던 맥락은 일견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결국 우리 사회가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과 맞물리며, 이러한 시대적·문화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가정학 연구자들의 관심은 이제 행정·제도·정책과 연계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가정학자의 해석, 접근방식, 구체적인 연구와 교육의 과제 등은 오랜 동안 가정을 공부하고, 사회의 눈으로 가정을 또한 가정의 눈으로 사회를 바라보아 왔던 습관 및 전문성 등에 기초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우리 사회가 아직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리 회자되는 화두가 아니었을 때부터 가정학문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에 접근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온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사회적으로 건강 그리고 웰빙의 흐름을 타고,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이 건강 및 웰빙과 접목되는 최근의 현상에 주목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 우리 가정학에 있어서 ‘건강’은 과연 어떻게 개념화되어 왔으며, 우리가 연구해 온 건강한 가정 혹은 가정의 건강성은 과연 무엇인가?
- 사회 전반적으로 ‘건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 건강과 웰빙이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로 자리잡은 이 때, 우리가 연구해 온 건강 그리고 가정의 건강성 개념은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가?
- 그래서 앞으로 가정학에서 ‘건강’과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며, 전문연

구자들의 과제는 무엇인가?

세계화,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다른 문화, 다른 사회를 수월하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별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심을 자국 내에, 자기 집단 내에 머물러있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들여다 보면 몇가지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 회귀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빈부 격차와 절대 빈곤수준에 처해 있는 개인과 가족이 있으나, 평균적인 수준에서는 그저 먹고 사는 생존과 생계의 범주를 뛰어 넘어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주 5일 근무제 정착, 여가문화의 확산, 노동권과 부모권에 대한 동일한 권리의식, 사적/공적인 생활시간의 균형, 양성평등, 자율성과 주체성 등 다양한 추구, 때로는 투쟁과 맞물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건강'에 회귀되는데, 이는 단지 신체적, 생리적 건강에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으로 확산되어 전인적인 건강 혹은 총체적인 건강에 대한 요구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건강은 우리 나라에서 뿐 아니라 생계적 욕구충족과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숙, 2004 : 47).

다른 한 편에서 또 하나의 사회문화적 관심주제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평화' 라고 할 수 있다. 전쟁과 기아, 지진과 재난, 폭력 앞에서 있는 제 3세계의 국가들, 종교 간 분쟁국가들, 약자들, 그들의 환경과 경험을 보고 들으며 이 사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평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의미를 다시 보고 새롭게 보기 시작한 것이다. 동남아시아 현장을 돌아다니고 온 한 여성운동가는, 그곳에서 기아와 전쟁을 보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고, 자신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평등이 아닌 평화로 돌려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죽음과 기아, 총과 폭탄 앞에 무력한 사람들을 보며 평등은 평화 없이 성취될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실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목표 그리고 삶에서의 추구하는 지향성이 될 수 있으나, 어쩌면 기아와 전쟁, 폭력, 죽음 앞에 설 때 오히려 우리는 평등보다는 평화를 붙들게 될 것이다. 이 때 평등은, 죽음이나 굶주림,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남성과 여성에게 또 세대 간 어떻게 다르게 구조화되고 접근되는가를 분석하는 관점으로 더욱 기능할 것이다. 최근 여성운동 내에서도 '성별 세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운동',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여성운동가나 평화전문가가 아니라도 전쟁과 폭력 없음을 포함하여 사회적 안전과 자유 등으로 평화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보면, '평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로 공유되고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평화를 건강과 관련짓고 싶은 이유는, 사회구성원들이 평화를 편견 없이 수용하고 이해하며 거기에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건강'이라는 개념도 대중을 통해, 가정학을 통해, 타학문분야를 통해 그리고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해 편견없이 이 사회에 수용되고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다. 동시에 이미 '건강'을 교육에서 연구에서 풀어내온 가정학(자)의 미션을 거기에서 찾고 싶은 까닭이다. 물론 현재 거론되는 평화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평화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며, 개인의 안전과 행복, 자유에 대한 추구에 국한되지 않고 전사회적인, 전지구적인 그리고 전세계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어, 훨씬 그 지평이 넓고 깊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 이에 비해 건강은 개인의 심신의 건강, 이를 위한 개인적 추구하고 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건강한 환경, 건강한 사회문화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그 범주가 생각보다 넓고 확장된 개념이며, 방송·영화·문화·기업·국가·사회·개인·가족 등 매우 다양한 대상과 영역에 적용가능하다는 면에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학자들이 규정한 건강은 이미 그 안에 평화, 안전, 폭력없음, 평등, 복지,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희금 외, 2005 ; 이기영, 2004 ; 송혜림, 2004 ;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 2003), 마찬가지로 평화의 개념¹⁾ 역시 복지, 안녕(wellness), 건강, 자유, 평등, 인간답게 사는 환경 등을 함의하고 있어(최관경, 2003 : 191), 건강도 평화만큼, 그리고 평화도 건강만큼 포괄적이고, 수용적인, 그리고 긍정적 가치와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회적 단어로, 사회문화적 코드로 이미 자리매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전쟁없음의 상태로 평화를 보는 소극적 평화개념에서 건강, 복지, 자유, 공존, 안전과 안정, 평등 등 적극적 평화의 개념이 최근 부각되는 것처럼, 건강 역시 신체적·생리적 건강에서 사회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으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특히 보편적으로 건강은 총체적 건강이라 하여도 신체적/생리적 건강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 정서적, 영적 건강의 개념 정도를 포괄하는 데 비해, 가정학에서의 건강은 사회적, 환경적 건강과 동시에 이를 가정생활에 적용하면서 평등, 평화, 복지, 나눔, 참여, 자율성, 주체성, 균형성 등으로 재해석되는데 (조희금 외, 2005 ; 이기영 2004 ; 송혜림 2004), 따라서 이러한 적극적 건강의 개념은 가정학 연구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의 사회문화적 코드로 자리매김 된 후에는, 그 지속가능성이 관건이 된다. 거기에는 실천, 행동, 생활양식으로의 정착 등이 뒤따라야 하며, 대중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코드는 쇠퇴하거나 소멸되고 다른 코드로 대체되기도 하며²⁾, 때로는 더욱 강한 사회

1) 평화를 단순히 전쟁의 부재로만 보지 않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 (basic human needs) 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를 구현하고 보전되는 진정한 발전으로 보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황영주, 1997 : 55).

평화는 모든 일의 안녕 질서, 총체성, 건강, 복지, 번영, 행동, 안녕과 복지, 개인이나 공동체의 일상적인 삶의 안녕, 복지, 번영, 심리적 안정상태, 정의로움, 화합 등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현요한, 1997 : 10-11 ; 14). 평화는 적극적 복지, 평등, 인간다운 생활이 자유롭게 보장된 상태, 빈곤 공포 억압 폭력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평등한 삶을 누리는 상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 개인과 공동체의 안녕, 복지, 건강, 부유, 우정, 일치, 기쁨, 축복, 공존, 생명 등 일체의 긍정적인 모든 가치의 집약된 상태로 볼 수 있다 (최관경, 2003: 189-191)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건강'을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연구에서, 교육에서, 다양한 활동에서 풀어내고 발전시켜 왔던 가정학의 경우, 이를 어떻게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사회가 수용하는 긍정적 가치로, 또 문화로 계속 발전시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연구자들이 직면한 과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와 교육에서 전개시켜 온 '건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적극적 개념을 어떻게 대중화하고 수용 가능한 개념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가정학(자)의 사명이 놓여있다고 할 있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몇가지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어쩌면 이미 그것이 유행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건강'은 대중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식, 사용되어 왔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가정에 적용한 건강한 가정 혹은 가정의 건강성도 이에 힘입어 보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시대의 흐름과 지향성을 반영한 개념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가정학의 주체적인 역할이 무엇인가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학에서 건강은 과연 어떤 개념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현 사회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코드로 건강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이 때 '건강'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 이에 기초하여 가정학의 제 연구영역들이 '건강'을 중심으로 추구할 수 있는 공통의 목표와 연구의 방향 그리고 개별 연구영역들이 개발시켜야 할 전문적인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사회문화적 Code로서의 건강과 웰빙, 그 개념과 함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건강 그리고 웰빙에 대한 관심은 웰빙 라이프스타일, 즉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삶의 질을 추구한다는 생활양식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개념규정이 있기는 하나 보편적으로 건강과 웰빙은 유사하게, 더 자주는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웰빙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WHO는 개인의 총체적 건강을 다섯 가지 서로 다른 웰빙 즉, 신체적·정신적(지적)·정서적·사회적·영적 건강을 성취한 상태(complete wellbeing)로 정의함으로

-
- 2) 최근 'Cool 지고 Warm 뜬다' 라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젊은이들 사이에 최고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쿨(cool)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필요 이상의 감정 소비는 바보짓이다'라는 식의 사고로 대변되는 "일탈과 반항의 코드" 해석되며 신세대의 사고 방식과 대중 문화를 지배해 왔고, 특히 디지털 문화의 개인주의적 특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쿨하다=세련됐다=시대를 앞선다' '쿨하지 않다=촌스럽다=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인식까지 낳았다. 그런데 최근 드라마·영화·음악 등 대중문화는 물론이고, CF, 마케팅과 패션 트렌드까지 사회 전반이 쿨에서 워(warm)으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쿨'이라는 대중적 코드의 쇠퇴 혹은 워(warm)의 대체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따뜻해진 대중문화, 자연스러운 워(warm)마케팅이 급격히 부상하는 중이라는 분석이며, 단지 대중문화와 마케팅 뿐 아니라 '퓨전음식에서 전통음식으로의 회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쿨 문화의 쇠퇴 연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2005년 10월 17일자).

서 웰빙을 건강상태의 지표로 보아 (이현수, 2005 : 36 ; 347 ; 이미숙, 2004 : 479)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건강과 웰빙을 사용하고 있다. 엄밀하게 볼 때 웰빙과 건강은 동의어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미숙, 2004 : 479).

건강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기 위해 기본적인 자료를 통해 만인을 위한 건강 (1977), 알파아타 선언(1978), 오타와 헌장(1986) 등에 나타나 있는 건강의 개념을 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한 것이 아니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온전한 안녕상태(wellbeing)이며 이것은 기본권이라는 점, 건강을 위한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점, 건강은 가정·학교·직장 등 여러 생활현장에서 출발한다는 점 등이 강조되어 왔다 (조무성, 2005 : 31-32).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전인적 건강 내지 총체적 건강(holistic health, wholistic health, whole person health, total health, complete wellbeing)으로 해석되는 것이다³⁾. 그리고 동일한 맥락에서 삶의 질, 행복, 보편적 복지(wellbeing) 등과 대체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에 주목한 연구자(이미숙, 2004)는 웰빙이라는 용어의 등장과 맞물려 오늘날 우리 사회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는 보편적 가치의 단순한 반영 이상의 특징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최근 우리 사회에 증폭되는 건강의 관심이 단지 보건과 의료의 차원을 넘어 상당 부분 문화유입의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생존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는 사회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며, 충분한 경제적 성취를 이룬 서구사회에서 최근 삶의 질에 대한 담론에서 건강이 핵심적 가치로 등장하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여 (이미숙, 2004 : 477-478 ; 480), 건강이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매김되는 맥락을 생활수준과 연계시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활양식으로 건강에 주목할 때, 건강은 신체에 집중되는 생리적·생물학적 개념에서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으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일상성이 부각되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사소하고 평범한 것으로 경시되어 왔던 일상세계에 대한 관심은 '생활'이 학문적 주제로, 정책의 이슈로 그리고 대중의 관심사로 거론되는 맥락을 형성하였고 (공인숙 외, 1996 : 23 ; 박재환, 1994), 그 '생활'을 연구의 대상으로, 주제로 전개시켜 온 가정학의 경우, 하나의 생활양식으로서 '건강'을 학문적 핵심 키워드로 부각시켜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 건강으로 재해석하여 사회적 단어로, 문화로 확장시키고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학 내부적인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사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이미 가정학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 그리고 관련되는 실천적 연구 결과의 제시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공공문제로 정책화하는 과정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사명에 부응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처럼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을 개념화할 때 건강과 상반되는 개념인 질병의 상태 역시 단순히 신체적인 병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질병영향지표는 직장 여가 감정 정서 집안생활 수면 휴식 먹는 것 q행 기동성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다(조무성, 2005 : 40).

또 다른 한편에서, 웰빙에 관심을 둔 연구자는 이를 행복과 유사하게 해석하여 심리적인 접근을 시도하는데, 여기에서 웰빙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예컨대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사람들은 선한 행동, 좋은 품성,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데서, 15세기 플로렌스 사람들은 미를 추구하는 데서, 빅토리아왕조의 영국 사람들은 명예와 교양을 추구하는 데서 참된 웰빙을 경험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현수, 2005 : 4). 그렇다면 현대 사회, 혹은 한국 사회에서 웰빙은 또 건강은 무엇에 대한 추구로 집약될 것인가? 이 사회 구성원들은 건강이라고 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기대하는가?

아래에서는 일단 그동안 가정학에서 연구되어 온 건강 그리고 건강가정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다른 학문분야에서 ‘건강’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용하는가를 간략하게 살펴 해석해 봄으로써, 건강 개념의 재해석의 가능성 그리고 건강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생활과학에서의 건강 그리고 건강한 가정

가정학에서 건강 그리고 건강한 가정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가족학자 유영주 등(1991 ; 유영주/어은주, 1995 ; 1999 ; 2004 등)이 시도한 일련의 연구들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 이 연구들은 건강가족, 건강가정, 건전가족, 건전가정 등에 대한 개념의 구별 혹은 통합과 함께 전반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개념 규정, 특성 등에 주목하여 건강가정연구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주요 개념과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건전가정은 가정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가정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가정으로, 같은 연구에서 인용한 서병숙(1994)의 경우 건전가정은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가족가치관과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는 가정으로(유영주, 1991 :98) 규정되고 있다. 한편 건강가족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원간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유영주, 1994). 이와 유사하게 어은주·유영주(1995)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상호간의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옥선화는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으로 건강한 가족을 정의하고 있다 (옥선화,1995:100).

특히 유영주는 관련되는 몇가지 단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데, 건전은 건실하고 튼튼하고 온전함,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고 온전함, 의지가 확고하고 중용을 잃지 않는 상태, 감정에 쏠리지 않고 분별이 있는 상태로, 건강은 육체적/정신적인 상태를 혼합한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건전가정(sound home)은 가족원이 건강하고 건실하며 가족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태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으로, 건강가족(healthy family)은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 -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을 도모하고 가족원간 상호작용, 대화기술,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여(유영주, 1999:100), 건전가정은 기능 중심으로 그리고 건강가족은 체계로서의 가족의 응집과 결속, 발달 등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그 개념에 접근하고 있다.

한편 유계숙은 건강가족(strong families)의 특성을 성숙한 가족관계와 원활한 가족과정,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신적 안녕, 감사와 애정, 질적 시간 공유,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으로 보아 (유계숙, 2004 : 174), 가족 내부적인 관계에서의 응집과 적응, 결속력 등에 주목하여 건강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족) 혹은 가족의 건강성(strong family/family strength)와 관련되어 Otto(1962)는 가족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능력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요구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가족구성원들의 욕구에 대한 민감한 지각능력, 의사소통능력, 지원 지지 격려를 제공하는 능력, 가족 내외에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관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능력, 이웃 학교 지역사회 정부와 건설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관계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능력,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통해서 성장 발달할 수 있는 능력, 자립능력과 아울러 필요할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가족역할을 융통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가족성원들의 개인성에 대한 상호 존중, 가족의 단합, 충성, 상호협조에 관한 관심 (유영주, 1999:96).

한편 건강한 가족, 건강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논의한 연구에서 이연숙(2004)은 우선 건강의 개념을 몇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건강한 가족(가정)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건강은 신체적/생리적 차원에서 신체의 형태적, 기능적 요소에 관심을 갖는 개념이며, 따라서 가정은 의식주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신체적 생리적 기능에 위협이 없게 하며 이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지원해 줄수 있는 특성을 지녀야 하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다. 또한 정신적/정서적/영적/심리적 영역에서 건강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관한 추상적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은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 불안정한 긴장감이 없게 하며 정신적 심리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지원해 줄 수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심리적/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은 인간이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가 서로 반응하는 상호작용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정이 가족간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문제나 긴장이 발생되지 않게 하며 가족관계 및 사회에 불필요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도록 완충작용역할을 할 때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연숙, 2004 : 89-90).

이처럼 건강가족(가정)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규정을 보면 건강한 가정, 가정의 건강성은 가정 생활의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한 생활영역과 과정을 포함하고, 때문에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개념규정 역시 복잡성을 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0년도 초반 가정복지기

본법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으로, 2004년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과 2005년도 시행이라는 최근 몇 년 간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건강가족/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에 힘입어 건강가정의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 적용되어 오고 있다.

예컨대 조희금 외 연구자들(2005)은 건강가정을 몇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경제적 안정, 열린 대화,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민주적 평등가족, 건강한 시민의식, 휴식 및 여가공유, 자원봉사 참여, 가족역할 공유, 일과 가정의 조화, 자녀의 성장 지원, 가정문화 창조유지, 합리적 자원관리가 그것이다 (조희금 외, 2005 : 31). 이러한 영역에서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균형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가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건강한 가정은 가정생활의 물질 체계와 인적 체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관계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체계로 규정되고 있으며, 그렇게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건강하며 동시에 건강하지 않다는 말도 가능하다. 즉, 모든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의미는, 경제적 안정부터 합리적 자원관리까지 모든 부분이 모두 건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차원, 어떤 가정도 취약하거나 향상이 필요한 생활의 영역과 내용은 있다는 맥락에서 그 건강성을 더욱 증진시켜야 할 요구가 있다는,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모든 가정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어떤 가정도 더욱 건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있으며 역량과 잠재력, 자원을 동원할 여지가 있고국가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념규정은 가족 내부적인 응집과 적응력, 결속력과 함께 가정과 사회의 관계, 생산과 재생산/노동과 여가의 균형, 공동체적인 의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의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사회가 수용하는 그리고 문화가 바람직하게 여기는 가정경영의 가치와 표준을 (v.Schweitzer, 1988) 가정에 적용하고, 이로써 구성된 간/가정과 가정간/가정과 사회간 상호관계를 담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은 곧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와 정책, 법(건강가정기본법)과 연계됨으로 건강한 가정은 사회성, 개방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다 견고한 토대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3. '건강'의 사회적 대중적 사용의미 : 그 포괄성과 긍정성에 대하여

이제 보편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은 어떻게 해석·사용되고 있는가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에는 우리가 생활 중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이 때 '건강'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다.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강은 매우 다양한 사회 영역과 환경,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이며, 이 때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보편적인 함의는 토대가 굳건하여 안정됨, 기능적, 도덕적, 성숙한, 삶의 질을 담보하는, 올바른 등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건강, 그 사용과 의미

원천	사 용	의 미 해 석
•기업목표	•건강한 사업아이템	•안정적인. 좋은. 목표달성가능성이 많은.
•기업의 가치	•건강한 가치..기업영속의 조건.	•사회적 책임. 공유. 성숙함. 봉사. 나눔, 도덕성. 투명함.
•노숙자들에 대한 강의	•건강한 철학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 깨끗한 의지.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
•영화	•한국 영화산업은 건강해졌고..	•기능적으로 잘 발달되어져 있는, 경쟁력 있는, 수준이 높은
•정치, 투표	•건강한 감시자로서의 네티즌 역할	•정의로운, 도덕적인, 올바른, 성숙한, 바람직한
•정부서류봉투	•물자사랑 나라사랑 투명한 공직사회 건강한 정의사회	•검소한, 투명한, 도덕적인, 올바른
•인터넷	•건강한 정보의 제공	•유용한. 건전한. 도덕적인. 유해하지 않은
•어린이집	•건강한 어린이.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	•전인적 건강. 거짓없음. 솔직함. 자연스러움. 깨끗함. 꾸밈없음.
•건설회사	•건강한 아파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편안하고 편리한, 기능적인, 환경친화적인, 유해하지 않은
•성격검사	•건강한 인간관계	•관계에 있어 적대적이지 않고 원만, 순탄, 성숙
•스포츠감독선정	•계약에서의 건강한 모습..	•투명한, 공평한
•초등학교 여름방학	•건강한 여름나기	•심신의 건강. 보람있음. 유용함.
•방송	•건강한 방송 건강한 사회	•건전한. 바름. 유해하지 않음. 올바름.
•캠페인	•건강한 명절문화	•나눔. 함께 함.
•정책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생산적, 성찰적, 문화체험적, 가족중심적
•기타	•기업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 건강한 대중문화.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공동체	•의식이나 사상이 바르고 건실함. 성숙함. 투명함. 희망 있음. 평화로움. 안정됨.

이와 같이 대중적, 사회적으로 이미 '건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과 주제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강한 사회적 수용성, 즉 대중들이 편견없이 '좋은' 가치와 문화로 수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그런데 왜 이를 가정에 적용한 '건강한 가정'에 이르러서는, 소위 '건강가정담론'에서 제기되듯 '비건강과의 대처로 인한 이

분법적 발상, 보수성/가부장성과의 연계, 전형과 정상만으로 범주화되는 다양성의 배제' 등의 비판과 맞닿아야 하는가에 놓여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이 다른 학문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합의한 논의가 아니라 일부 집단에 의해 '조성된 담론'이라는 점, 그 기저에는 일정한 '대상'에 대한 학문적 주도권 갈등이 놓여있다는 점, 아직까지 그에 대한 논리적, 학문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채 선언적 주장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는 점, 게다가 대중의 보편적 생활양식이나 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점⁴⁾ 등에 주목한다면 '건강한 가정'에 대한 비판은 아직 그리 주류적 세력화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를 기정사실화할 필요는 없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건강'이 갖고 있는 포괄성과 수용성이 왜 '건강한 가정'에는 오롯이 적용되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적극적 건강의 개념으로 건강한 가정을 재해석해 온 가정학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지금까지의 대응방식, 근거와 논리 제시의 적극성, 추상적 개념으로의 '건강한 가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실적용성을 담보해야 할 필요성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라도 포괄성과 수용성을 담보하는, 그래서 다른 학문분야 및 대중과 함께 추구해 가는 하나의 사회문화적 단위로 건강한 가정을 재해석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에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최근의 사례 중 '건강 도시' 프로젝트에 주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건강도시는 일견 '도시'가 주는 물리적 속성 때문에 다분히 물리적, 환경친화적인 개념을 떠올릴 수 있으나, 그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다. "건강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며 도시민이 삶의 모든 기능수행과 최대한의 잠재력 개발에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장하는 도시"(조무성,2005:44)로 개념화되어, '인간'을 중심으로

4) 대중의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연유로 '건강한 가정은 "남성 가계 부양자를 기초로 노부모를 봉양하는 전근대적·가부장적 가정형태"라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전혀 거론된 바 없는, 근거없는 시나리오를 유포하건 아니건(송혜립, 2003), 이미 생활에서 가져오던 습관에 의해 건강한 가정을 가족구성원 간 관계가 결속된, 안정된, 건전한, 발전가능성이 많은 가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형태로 아니면 기능으로 접근할 것인가, 과연 비건강한 가정과의 대치점에 놓여있는가 등은 다분히 학문적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것 같다. 이는 특히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지역사회 다양한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정책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며 국가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건강가정에 대한 논쟁과는 아주 무관하게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사업을 담당하는 새로운 전담조직이 설치되고, 공무원들의 업무가 변화되며, 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배출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현장에서 건강가정은 이미 'processing' 중이며, 결국 건강가정담론의 지속 혹은 종식은 이제 일정 부분 학자의 몫으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장에서의 실천과정에서 야기된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 전담인력의 고민 등은 정책과 연구에 피드백되어야 하며, 학자의 정책개발이나 연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해도, 이미 가정학자들은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오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은 그 형태가 아닌 기능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합의한 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정학자의 고민은 이를 어떻게 타학문분야와 공유할 것인가, 그래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에 놓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욕구충족이라는 맥락에서 가정학이 늘 관심가져온 ‘자원’이 핵심개념으로 부각되며, 이는 또한 건강한 가정은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원화가 가능한 가정이라는 가정학의 해석과 일맥상통한다5).

특히 생활행정학의 관점에서 건강도시에 접근하여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조성할 때, 여기에는 상호부활활동, 건강한 공공정책, 지역사회참여, 건강인지, 혁신, 전략적 기획이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데(조무성, 2005:50 이하), 이러한 요소는 건강도시 자체의 기능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정책, 주민참여, 이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 운영과 관리 등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학 내부에서 진행되어 온 ‘건강한 가정’에 대한 개념규정을 재검토하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 가능한, 그래서 소위 ‘건강가정 프로젝트’라 할 수 있는 체계를 효과적·주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가정학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과제와 전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가정학에서 ‘건강’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관련된 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개념의 재해석 그리고 포괄성과 수용성의 확보

상술한 바와 같이 ‘건강한 가정’의 개념을 다양한 요소로 구성하고, 사회적·문화적으로 확장된 요소들, 즉 그 안에 평등과 민주성, 복지, 평화, 안전과 안정, 자율성과 주체성, 공동체 문화의 창조 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은 가정학의 독특한 산물이라 하여도, 결국은 이러한 개념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 때의 사회적 합의는 타학문 분야의 동의와 참여, 대중의 일상생활세계로의 정착과 확산 그리고 하나의 공공문제(public issue)로서 국가사회의 제도적·정책적 체계와 맞닿음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건강가정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위에서 소개한 조희금 외(2005)의 건강가정 개념6)을 보면 그 내용에 따라 임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

-
- 5) 동시에 건강가정기본법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조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는 법의 정신에서도 드러난다.
 - 6) 여기에서 이 개념을 사례로 거론한 것은, 이것이 건강가정에 대한 최종적이며 가장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되어 ‘건강가정’이 제도 및 정책과 연계되는 효과성의 차원을 강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표 2〉 건강가정의 요소와 영역

건강가정의 요소	영역화
경제적 안정/안정적인 의식주생활/휴식 및 여가공유/자녀의 성장 지원/가정문화 창조유지/합리적 자원관리	가정의 내적 기능
열린 대화/민주적 평등의식/가족역할공유	구성원 간 관계의 결집과 유대
건강한 시민의식/자원봉사 참여	구성원의 대사회적 역할

〈표 2〉를 보면 가정의 내적 기능, 구성원 간 관계의 결집과 유대는 가정생활 내부적인 역량 강화와 관계되며, 구성원의 대사회적 역할은 가정과 사회 간 관계라는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의 사회성을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영역은 충분히 배타적이지 않아 상호 간 연관되는 측면도 있으나⁷⁾, 잠정적으로 이러한 영역화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가정의 대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좀 더 부각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개방성이 좀 더 강조되면 가정의 대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가정에 대한 사회의 역할이라는 차원도 더 적극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이로써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구성원의 부양·양육·교육 부담에 대한 개별가정의 부담을 국가사회가 분담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정의 기능에 대한 국가사회의 분담 등) 가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래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과제가 보다 건강한 가정과 명료한 연계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평등한 관점(Gender-Perspectives)에서 여성의 가족 내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 모두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공히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과제(여성가족부 출범에 따른 브리핑자료, 2005)와도 상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다시 건강한 가정이 지향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관계와 대응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형태에 관계 없이 다양한 가정들이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는 가정학 연구자의 주장 역시 선언적 강조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건강한 가정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가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건강한 가정에 대하여 해석이 상충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상적 개념이 실상으로 구체화되기까지의 지체현상과 한계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정학자들의 연구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실제 현장에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사업과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소위 ‘일반 가정’ ‘보편적 가정’ 중심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다양한 가정의 실태와 요구에 직면한 결과가 더욱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한부모 가정, 이혼/재혼가족, 노인가정 등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7) 예컨대, 가정의 내적 기능인 가정문화 창조는 사회문화 형성과 연계되어 사회적 속성을 포괄하며, 자녀의 성장 지원 역시 사회구성원의 양육과 배출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적 영역과 맞닿아 있다. 또한 대사회적 역할인 건강한 시민의식과 자원봉사 참여는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교육, 부모의 모델링 등에 영향 받는 측면이 강하다.

이미 가정학자들이 '다양한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상태를 충족했을 때 건강한 가정이라 할 수 있는가의 지표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복지 부분에서는 이미 국민복지지표, 농촌복지지표, 청소년(문화)복지지표 등이 연구·개발·제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건강가정지표는 어떠한가? 이미 가정학 내에서도 선도적인 연구자들이 관련되는 지표를 개발하여 놓은 바 있다(유영주, 2004; 어은주/유영주, 1995; 이소우 외, 2003).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건강한 가정의 대사회적 역할, 지속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가정의 역할과 기능, 포괄성과 수용성의 담보, 정책적/제도적 함의 등을 포함하여 재구성,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건강가정지표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보다 견고해져야 할 지도 모른다. 어떤 방향이던 건강가정지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오늘 발표에서 제시되듯, 가정학을 구성하는 학문분야들, 즉 가족관계학·가족자원관리학·소비자학·식품영양학·아동학·의류학·주거환경학 등에서 '건강한 가정'에 회귀될 수 있는 연구 주제·내용·방법론 등을 개발하고 열린 포럼을 통해 이러한 연구를 공유, 교환하며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사회적, 대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긍정적인 건강의 의미를 또 그 해석을 건강한 가정에도 적용하여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주류 문화로 뿌리내리고 확산되는 데에, 즉 포괄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한 가정'을 가정학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또 하나의 개념으로 재해석하고 공감대를 조성하기, 이러한 쟁점을 보다 조직적·체계적으로 구상하고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연구결과를 교환하기 그리고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하기 등 순차적인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학문적 거버넌스의 구축 및 생활과학의 주체성 확보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 내부의 노력이 보다 힘을 받으려면 학문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거버넌스적 관점은 일정한 대상을 공공문제로 정의하고 해결책을 형성 실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활동에 접근 가능한데, 이를 학문 영역에 적용한다면 학제적 연구, 학문 간 역할 분담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나 가정의 건강성 증진 혹은 근본적으로 가족문제 자체를 공공문제로 정의했다는 점, 그래서 법·제도·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가정학자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이제는 그 연구결과를 동원하여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기여해야 함은 자명하다. 또 이를 위해 다른 학문분야와 거버넌스를 통해 협력과 상생의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문적 거버넌스의 구축은 곧 주체성 확보 라는 새로운 과제를 탄생시킨다. 이미 세계화와 거버넌스를 논하는 국제 질서에서, 세계화는 거버넌스의 근본 토대, 즉 자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 간의 공정한 거래·타협·조정 의 적실성을 확보하는 데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거버넌스 위기 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국가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체계들의 연계와 네트워킹 그리고 그들 간 타협과 협의는 일정한 주체의 생존에 위기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계를 초월하여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며, 이 때 사회적 신뢰, 사회적 공감대, 사회적 정체성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이다 (임성호, 2003 : 23-25). 또한 이러한 관점을 학문적 거버넌스에 적용한다면, 일정한 연구대상에 대한 주체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 학제적 연구나 다른 학문분야와의 역할분담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해석과 맞물린다. 거버넌스적 연계는 필요하되, 독자적이고도 주체적인 연구의 관점과 성과 없이 효과적 연계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주도권과 추진력을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등 현실적인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를 건강 가정에 적용할 때, 이미 건강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관심, 참여는 어느 정도 확고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주체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타 학문분야와 학제적 연구를 모색하고 역할 분담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협의의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새로운 파트너십이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형태로 강조된다 (이명석,2002)는 점에 미루어, 학문적 거버넌스는 정부와 이익집단, 시민사회 그리고 학문 간 거버넌스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학의 입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정학의 입지는 어떠한가? 이미 건강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원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 건강’의 개념을 연구해 온 가정학의 경우, 이를 신체적 혹은 심리적 건강의 차원에 국한시키는 대부분의 다른 학문분야보다, 심지어 ‘건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다른 학문분야보다 건강 관련 연구에서 주체성을 확보할 가능성은 많다.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가정학이 보여준 조직력, 응집성 등도 더 이상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건강’과 관련, 가정학이 갖는 역량 및 미래의 과제에 대하여 이연숙(2004:96)은 다음과 같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래사회 생활과학을 위해 생활과학 내 고유한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 이론의 정립에 건강이 핵심개념으로 위치되어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학 원래 미션이 건강(wellbeing)을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현대인 모두의 중요 관심사로서 매력을 지니고, 타 관련 학문과 차별성있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인간을 중심으로 통합적 해설이 가능하고 생애주기 전반을 진전함에 따라 역동성 있게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성의 흐름을 타고 생활에 대한 관심이 부각,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써 예전에는 공

적·학문적·정책적 이슈가 되지 못했던 ‘사적인 생활, 여성, 재생산, 관계, 돌봄, 살림’ 등이 공공문제가 되고, 그 연구분야가 ‘힘’을 갖는 최근의 추세는 가정학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또한 ‘건강한 가정’에 대한 주체성 확보 및 효과적인 학문적 거버넌스 구축의 토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3) 건강한 가정의 정책화 - 건강가정 프로젝트

건강한 가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건강가정기본법’에만 천착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에 대한 제도적·정책적·행정적 접근의 대표적인 장치라는 점, 이를 토대로 전달체계, 사업, 서비스, 정책, 전담인력 등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 등에 미루어, 현재는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정학자의 관심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머물지 않고 보다 확장된 환경과의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어야 하며 이를 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우리의 연구가 ‘건강한 가정’으로 결집되는 일정한 축은 필요하다.

이 때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과의 맥락을 고려하여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소위 ‘건강가정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데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건강도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상호부문활동, 건강한 공공정책, 지역사회참여, 건강인지, 혁신, 전략적 기획 등은 건강도시 내부의 기능 향상 뿐 아니라 이를 가능케 하는 환경적, 정책적, 제도적 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강가정 프로젝트는 관련되는 정책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 사실 가정(생활)은 무수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되며, 따라서 가정과 관련된 정책은 현재 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없었던 때에도 이미 주택·교육·보건·복지·노동·의료·교통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으로 다루어져 왔다. 때문에 가족정책 관련 총괄업무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신설에서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여성가족부에게 가족정책 추진시 어느 정도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그에 합당한 권력을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다른 부처에서 가족 관련 사안을 결정하기 전 조정의 기능을 여성가족부에게 부여할 것인가, 다른 부처의 결정이 가족에 ‘심각한’ 위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때 여성가족부가 이를 제지할 권력을 부여할 것인가 (김성천·안현미, 2003 : 58-59), 여성가족부와는 별도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가족정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둘 것인가, 이 때 여성가족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등은 여전히 지금도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위에서 거론된 정책적 관점에서의 건강가정 프로젝트는 정책집행의 주무부처 여하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라,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총괄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적 체계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건강가정’을 중심으로 법과 제도, 정책을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건강한 가정의 요소(조희금 외, 2005)를 중심으로 그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정책적 관점에서의 건강가정 프로젝트8)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요소	관련 정책과제 예시*
경제적 안정	소득 안정, 조세제도, 일자리 창출, 일-가족 양립, 남성과 여성의 생애노동 지원, 모성보호, 노동권 확보, 근로자 권리 향상, 실직제도, 고용보험 등
열린 대화	가족생활교육, 가족관계 증진 교육과 상담, 가정폭력 방지, 양성간/세대간 평등문화 조성 등
안정적인 의식주생활	경제적 지원,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과 안전, 주택시장, 교통, 식품영양 지표 개발, 의료적 지원, 유해한 먹거리환경, 주거환경 등에 대한 감시 등
민주적 평등가족	양성평등정책, 가사분담과 역할공유 지원, 일-가족 양립, 새로운 가족가치 홍보 등
건강한 시민의식	자원봉사 관련 정책, 공동체정신 확산의 제도화, 위해환경 감시체제 구축, 교육과정에 반영 등
휴식 및 여가공유	여가정책, 여가의 공공재화, 부모권 확보, 건강한 여가문화 지원 등
자원봉사 참여	자원봉사 관련 정책과 제도, 교육과정에 반영, 자원봉사 전달체계 구축, 관-민-산-학 협력관계 지원 등
가족역할공유	가족생활교육과 상담의 제도화, 교육과정에 가족가치 반영 등
일과 가정의 조화	노동정책, 모성보호정책, 양성평등정책, 노동권과 부모권의 균형 지원 등.
자녀의 성장 지원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는 공동체문화 형성, 보육제도, 교육제도 등.
가정문화 창조유지	건강한 가족가치 강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정문화 활성화, 문화정책, 여가정책 등
합리적 자원관리	생활설계교육과 상담의 제도화, 대상별 자원관리교육/상담 프로그램 개발, 정보제공 등.

* 제시되는 정책과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그 속성에 따라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 제도, 법 등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이와 같이 주무부처와 실행주체, 관련되는 학문영역 등을 막론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재구성해 봄으로써 다양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가정학의 목표, 건강가정기본법의 지향성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총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즉 건강가정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학문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정부-학문-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의 네트워킹, 각 주체들의 역할 등을 보다 명료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참여, 상호부문활동, 효과적인 정책수행 및 평가 관리 등의

8)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가치관의 회복 및 교양정책, 자살예방에 관한 정책, 부패방지, 봉사 증진, 건강한 놀이 증진 등 상당히 포괄적인 주제들이 거론되고 있다 (조우성, 2005).

영역들을 체계화시킴으로써 견고한 건강가정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데 있어 가정학자의 주도적인 역할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가정은 우리들 대부분이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보내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틀이며 동시에 아동에게 최초의 양육, 교육환경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환경이고, 일상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재생산활동의 중심지이다 (구혜령 외, 2002). 그 형태와 기능, 또 생활양식 등에 있어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에 주목한다 해도, 형태와 기능 그리고 살아가는 양식이 다를 뿐 사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함께 하는 삶, 공동의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 나가는 생활의 공동체,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생활의 단위를 필요로 한다. 특히 가정이라는 생활의 공동체는 후기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가면서 휴식과 안정, 여가, 재생산의 중심지로 보다 부각되는 생활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가정을 그리고 그 구성원인 인간의 생활을 연구하여 온 가정학은 이제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의미가 부각되고 건강과 웰빙이 유행하는 시대에, 가정의 건강성에 대한 가정학자의 관심은 그 적시성,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을 공공문제화 하는 데 미친 기여 등으로 제도약의 기회를 포착하였다. 반면 그 지속성과 효과성의 차원에서, 건강이 내포한 긍정적 의미와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포괄성을 건강한 가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확산시킬 것인가, 이를 위한 학문적 거버넌스 구축에서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보다 거시적으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어떻게 체계화하여 건강가정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구상하고 실천할 것인가는 가정학이 직면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제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면서 직면한 과제를 풀어내고, 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학문세계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가정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요인들, 이와 상호작용하는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물질적 풍요를 달성한 우리사회는 이제 무한한 진보와 성장, 양적 팽창 등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지향성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성,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준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파괴와 오염의 문화가 아닌 살림의 의미, 돌보기의 의미가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송혜림, 2000). 성장과 분배의 균형, 생산과 재생산의 균형에 대한 인식도 자리매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인적 건강, 총체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향상될 것임은 자명하며, 건강은 가정학이 제시한 적극적 건강개념으로 더욱 확산되어갈 것이다.

따라서 성찰과 관대함, 사회적 책임감, 검소함에 대한 새로운 사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속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인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는 새로운 생활표준(v.Schweitzer,1999)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의 한 지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가정은 이러한 표준을 그 구성원에 대한 부양·양육·교육의 과정에서 생활양식으로 또 문화로 함께 추구하고 실천하는 생활의 공동체로, 또 우리 생애 가장 본질적 가치, 즉 평등·평화·자율

성·주체성·공동체성 등을 내포한 단위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적이며 사회수용적인 건강가정의 개념은 이러한 가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예측하여 연구하며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미래지향적 가정학, 가정학자의 역할은 단지 가정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점에, 건강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가정학의 미션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 가정학 연구자들의 협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v.Schweitzer(1983). Haushaltsführung. Stuttgart : Ulmer Verlag.
- v.Schweitzer(1999). 독일의 여성 및 가족정책.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대구 카톨릭대학교 가정대학 주최 여성정책전문가 초청강연 자료집.
- 공인숙 외(1996). 기술에서 과학으로 ; 과학에서 인간으로. 대한가정학회 제 49차 1995년도 추계 학술대회 21세기를 향한 가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자료집.
- 구혜령 외(2002). 가정생활기능강화를 위한 진단척도의 적용과 보급. 보건복지부 지원 2001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 김성천·안현미. (2003). 참여정부 가족정책의 기본 구성요소의 분석과 발전방향 모색. 한국가족복지학 12. 35-64.
- 노용구(2005).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여가정책.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8. 5-15.
- 대한가정학회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추진위원회(2003).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Workshop 자료집.
- 박재환 편(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출판사.
- 송혜림(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송혜림(2003). 건강한 가정은 가부장적 가족이 아니다. 한겨레 2003년 11월 13일자 왜냐면.
- 송혜림(200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과제와 향후 전망. 김해건강가정지원센터 주최 심포지움 '건강가정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7.
- 여성가족부(2005). 여성가족부 출범에 따른 브리핑 자료.
- 옥선화(1995). 가족위기와 전망.한국가족문제 - 진단과 전망. 한국가족학회 편.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 유영주(199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가족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45-64.
- 유영주(1999). 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93-102.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19-142.
- 이기영(2004).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한국아동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이미숙(2004). 생활양식으로서의 웰빙(Well-Being) : 이론과 적용의 뿌리찾기.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477-484.
- 이소우 외(2003). 한국가족의 건강성 척도개발 연구. 옥선화(2004) 한국가족의 건강가족 지표-탐색적 접근. UN 세계가정의 해 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이연숙(2004). 건강한 가족, 건강한 환경 그리고 건강한 생활양식.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40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이현수(2005). 웰빙의 심리학. 대왕사.
- 임성호(2003). 세계화시대의 거버넌스, 박광희 편 21세기의 세계질서 : 변혁시대의 적응논리. 신아시아질서연구회.
- 조무성(2005).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 지역혁신 : 건강도시의 성격과 전망 - 생활행정학의 접근.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1-62.
- 조희급 외(2005). 건강가정론. 신정출판사.
- 최관경(2003). 21세기의 평화교육. 교육철학 12-24.
- 현요한(1997). 기독교 평화교육의 조직신학적 기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2.
- 황영주(1997).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2.